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xperience of Escaping from Prostitution of Sexual Traffic Victims

김혜경, 구차순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ae-Kyung Kim(khk160@hanmail.net), Cha-Soon Gu(chsgu@uu.ac.kr)

요약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탈성매매 경험과정에 관한 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Strauss와 Corbin(198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본연구의 참여자는 탈성매매 되어 있는 여성 10명으로 탈성매매 기간 평균 2년 이상이 된 성매매 경험 여성들이다. 본 연구 결과 105개의 개념과 35개의 하위 범주와 17개의 범주를 도출해 냈다. 축코딩에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결과, 탈성매매 경험의 인과적 조건으로 '잘못된 선택의 시작'이 나왔다. 중심현상으로 '심신의 황폐'가 나왔다. 이러한 중심현상을 가져오는 맥락적 조건으로는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임', '무력감'이 나왔으며 중심현상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으로서는 '불가피한 중단', '지지체계', '막연한 기대', '퇴출됨', '역할감 생김', '가족의 그림자'가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자성', '자포자기', '벗어나려 애씀'이며 결과는 '정체성혼란', '혼란에 대한 두려움', '성매매 재유입 여지', '벗어남'으로 도출되었다. 탈성매매 과정은 '심신의 황폐 단계', '단념의 단계', '의지 회복의 단계', '평범한 삶의 적응에 도전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성공적 탈성매매 여부는 자신의 주체적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중심어 : | 성매매피해 | 탈성매매 | 근거이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 experience of sexual traffic victims and contribute for its formation of theory based on the results. A method of study was performed by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of Strauss and Corbin(1988). Through the results of study, one hundred and five concepts and thirty five subcategories and seventeen categories were deducted. 'destroy of mind and body' from the central phenomenon. The core category of experience of escaping from prostitution was presented by 'return of ordinary life recovered from destroy of life' and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prostitution was presented in order of 'destroy of mind and body step', 'abandonment step', 'recovery of will step', 'challenge of adaption of ordinary life step'. In the study, it followed that an independent their own will of a sexually exploited women play an important role for a successful escaping from prostitution.

■ keyword : | Sexual Traffic Victims | Escaping from Prostitution | Grounded Theory |

1. 서론

성매매(Prostitution)문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관념과 연결된 경제적 비행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낙인의 대표적인 사회현상으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었으나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1]. 현실적으로 생존조건을 침식당하는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성매매여성이 되도록 강제되고 있어, 성매매는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지·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성매매여성들이 집결지 단속을 피해 더 음성적인 성 산업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으며 착취와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3]. 하지만 성매매가 필요악인가에 대한 문제에 앞서 성매매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는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가 잘못된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편견적 시각과는 달리 지금 이 시간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가출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 성매매에 빠져들어 자유를 구속당하며 착취적 성매매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4].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개인의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남녀 간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관계 속에 뿌리 박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신의 육체가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성적 서비스의 도구가 될 때 이미 폭력은 자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반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은 그들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므로 폭력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강하다는 문제이다. 부도덕한 성매매를 그들이 왜 선택했느냐는 것, 즉 잘못된 그들의 판단은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적인 국가에서조차도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이 자발적 노예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다[6]. 따라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며 여성의 성에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이 전제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선택이든 타의에 의한 선택이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주의를 채택하여

형법 및 관련법에서 성매매한 자와 업주 및 알선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매매는 남성의 성문화로 용인되고 있으며[2].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도덕적 잣대가 더 엄격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으로 보호하고자 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이 도리어 생존권 위협이라며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집회를 열었다. 이는 성매매라는 궁극적인 사회적 함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성매매피해여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원인과악보다는 이제 성매매피해여성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 성매매피해여성이 특별법으로 인해 '빛'과 같은 강제요인이 무효화되면서 탈성매매의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현재의 산업형 성매매에서는 일자리라는 사회경제적 맥락때문에 성매매가 도리어 일상화되면서 보다 쉽게 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가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열악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있어 탈성매매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산업의 확산과 다양한 유흥업의 발달로 예전과 다르게 구속과 강제성 없이 성매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이 성매매 일을 중단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중단한다고 해서 곧 다른 직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 및 각계 사회단체 및 학계의 노력과 사회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탈성매매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피해의 개념과 성매매 여성이 가지는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경험과 관련된 탈성매매 과정은 모순적 과정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매매 그 자체를 보는 잣대가 아닌 그들이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되었듯 이제는 성매매피해여성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논의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에 주시하여야 하며, 성매매 관련 비판적 검토와 앞으로의 발전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험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위해서는 성매매 전후 이들의 삶의 경험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성매매 초기 유입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성매매를 단절하고 탈성매매를 하였는지, 변화를 일으킨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서 개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탈성매매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탈성매매 대책을 구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첫째, 탈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 삶의 과정을 알아보고, 둘째, 성매매경험 과정을 통한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셋째, 탈성매매 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들이 경험한 탈성매매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이들의 탈성매매경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Mansson과 Hedlin(1999)[7]이 개발한 탈출이론은 스웨덴에서 198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성매매에서 빠져나온 2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변화과정을 집중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어 탈출하는 과정을 성매매 유입(drift in) → 성매매에 빠짐(ensnarement) → 탈출전(breakaway pre-stage) → 탈출(breakaway) → 탈출후(after the breakaway)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은 어린 시절의 경험, 경제적 상황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 성매매에 빠지게 되며, 신체적·심리적 한계에 부딪치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게 되면 탈성매매를 시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8].

역할 변화과정과 전환에서 성매매에 위기를 느낀 피

해 여성은 자신의 역할변화(role change) 혹은 역할 탈출(role exit)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필요하고, 전환점이 발생하면 탈출행동(exit behaviour)을 시도한다. 전환점이 있어야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전환점이 되는 유형에는 자신의 상황에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거나 ‘외상적 사건’에 의해 충격을 입거나 특별한 ‘긍정적 경험’을 겪게 되면 성매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성매매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지는 않는다고 Mansson과 Hedlin(1999)은 이론의 한계점을 명시하고 있다[7][8].

또한 Hester와 Westmarland(2004)의 욕구와 지지모델에 따르면 성매매는 유입에서 성매매 행위,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들 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취약성, 혼돈, 안정화, 이동 등을 경험한다. 또한 탈출시도는 실제 성매매로부터 탈출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며, 이 시기에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다[7][8]. 욕구와 지지모델의 4가지 단계는 앞뒤로 이동이 가능함대, 즉 취약성에서 혼돈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다시 취약성으로 복귀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대처능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7][8].

이렇듯 Hester와 Westmarland(2004), Mansson과 Hedlin(1999)의 근거이론 연구는 성매매 유입에서 성매매 행위, 탈출까지 일련의 단계를 포함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성매매 지속 요인으로 열악한 경제 환경, 약물 의존, 학대 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성문화가 보다 개방되어 있는 서구문화권의 이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구와 다른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환경에서의 탈성매매 경험과정에 따른 독자적 이론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탈성매매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전후를 계기로 연구 내용에 의한 양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성매매 관련 연구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탈성매매 관련 논문은 특별법 시행 전에는 거의 없고 특별

법 시행 후 부터 연구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탈성매매가 주제인 연구는 양적으로는 활발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자신의 과거 행적인 성매매경험을 숨기고 싶어 하는 특수성과 탈성매매와 재유입을 반복하는 사례들이 많아 완전한 탈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기준점이 모호하고 재유입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는 문제가 탈성매매라고 주제 지어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탈성매매에 관한 연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로[9-11]는 탈성매매 후의 자활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자활지원에 관한 경험, 사회경제조직의 사례연구, 자활을 위한 정책 방안, 자활지원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자활지원 정책 분석, 탈성매매 여성들의 직업 탐색,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 연구 등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탈성매매된 여성의 자활에 관련된 연구들은 실천적 연구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적 맥락의 이해 없이 자활이라는 주제로 이들에게 주는 도움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연구들 또한 각 체계의 분류가 특요인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이들과 이들 주변의 전체적 경험과정을 살펴볼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12-14]도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바람직한 대응책을 찾아 성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초기에 성매매를 단절하게 되는 바람직한 방향의 탈성매매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에서 성매매가 단절되지 못하고 성인으로 이어지는 성매매가 증가 추세에 있는 지금의 성매매 실태를 본다면, 아직 미성숙되고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과 성인의 상황은 풀어가는 과정이 다르므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탈성매매과정을 보고자 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경험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15] 다수의 탈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는 성매매경험 중 겪는 외상의 경험이 정신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에 따라 정신건강에 부정적·긍정적 요인을 제공한다는 결과로 탈성매매여성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과 정책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심리·정서적 지원 평가 등으로 모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에 의한 조사 연구로서 단편적이고 피상적 결과만을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탈성매매여성들의 생애사 등 질적 연구들[16][17]에서는 탈성매매여성들의 경험 세계를 질적 방법의 접근으로 탈성매매를 저해하는 구조적, 개인적 요인을 구별하고 탈성매매의 저해 요인을 도출하면서, 탈성매매한 여성들 공익기금의 조성과 사후 지지 서비스의 확대를 제언했다. 정책관련 연구[2]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례, 자활 지원 정책경험,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정책 분석,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탈성매매여성 지원 대책 여성운동 역할 연구의 내용들로 구성된 연구들로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탈성매매 관련 정책입안과 예산 등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기타 연구들[18][19]은 철학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들로서 탈성매매여성들의 지나온 경험과의 연관성이라기 보다는 각기 다른 방법들로 구성된 치유방법들에 대한 연구, 또는 탈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방지 지원 활동 경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상담들은 이들을 위한 다양한 탈성매매 후의 종교, 철학적 치유방법과 선 경험자로서 탈성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제시는 실천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나 그들의 개인별 실제적인 경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된다면 성공적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실효성이 높아지리라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탈성매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양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지만 다방면으로 연구되어지면서 성공적인 탈성매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을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실태와 단편적인 양적연구, 특요인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들로서는 탈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본 연구를 통해 그들의 탈성매매 경험과정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유형에 따른 실천이론을 구축하여 각 유형별에 따른 실천적인 개입이 연구되어진다면 탈성매매 및 재유입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근거이론의 적용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이라는 연구주제는 탈성매매여성들의 주관적인 경험과정을 밝히고 이해하며 성매매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험연구를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체험담을 직접 들어보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자 할 때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20]. 이와 더불어 질적 방법은 양적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21]. 특히, 질적 연구의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은 연구주제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탐색적인 연구나 어떤 적절한 이론도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며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특성을 지닌다[22].

Glaser와 Stauss가 이름 붙인 근거이론은 연구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서 나오는 이론을 의미한다. Stauss와 Corbin (1998)은 연구 방법에 있어 실제로 진행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활동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형성이 필요하며, 사회현상과 인간행동에는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고, 사람은 의미라는 기초위에서 행동하며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되고 다시 재정의되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상의 본질에 대해 민감해질 필요가 있고 조건과 행동과 결과 간의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거이론의 연구방법을 개발 하였다고 하였다[21][23]. 사회복지의 주요 실천 모토인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에서 출발하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과정에 대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여 고찰하므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며, 이러한 이해는 사회적 지원을 위한

방법, 목표설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지원을 위한 논의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22].

본 연구의 목적은 성매매피해여성이 탈성매매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이들이 주변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성매매를 벗어나게 되는지 분석하여 탈성매매 과정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근거이론으로 수행한 이유는 첫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운과 도전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고[24] 둘째,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 조건, 현상, 전략, 결과의 단계와 유형을 이해하는데 있어 근거이론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 자료에서 경험과 의미,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25]. 셋째, 근거이론 연구는 현상과 상황적 맥락속에서 대상자들의 주요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사회과정(basic social process; BSP)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성매매과정을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22],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진술 자료에 근거한 탈성매매여성들의 경험 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사회복지적 함의를 주는 경험 과정과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Stauss와 Corbin (1998)의 근거이론방법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Stauss와 Corbin (1998)의 이론적 표본 추출이란 개념간의 변동을 발견하고,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도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이 되는 참여자들이 이론을 가장 잘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이론적 표본 추출을 사용하여 표집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아니면 도식화 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탐사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25].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먼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탈성매매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해당 교육센터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2014년 4월 ~ 2015년 2월까지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여성을 해당 교육센터에서 추천받았고, 이 참여자를 통해 연구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또 한 사람의 참여자를 소개받는 식으로 해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성매매에 지속적으로 종사했던 경험이 5년 이상인 성인 여성으로 현재 2년 이상 성매매를 단절하고 있는 상태인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는 탈성매매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고 해당기관 실무자로부터 인정된 사람으로 자활 프로그램 수료 또는 수료 중 프로그램 실무자와 지속적인 연락과 상담 관계에 있는 여성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나이	학력	성매매 기간	탈성매매 유지기간
1	36	고졸	15	2
2	56	고졸	25	6
3	62	무학	25	3
4	43	고중퇴	22	2
5	32	고중퇴	10	4
6	34	고중퇴	12	2
7	35	중중퇴	13	3
8	58	무학	35	3
9	29	고중퇴	8	2
10	53	고중퇴	31	3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접과 관련기관 행정문서와 소설, 신문, 잡지 등 비 학술적인 문헌도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자료수집 도구로서 녹음기, 현장노트 등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와의 면접은 2회 ~ 3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1회 걸린 면접시간은 30분 ~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절차는 Strauss와 Corbin(1998)의 분석방법에 의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개방코딩(Open Coding)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의 면담 자료를 통해 얻은 자료

를 근거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분석의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무리지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시켰다. 그리고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전시켜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는 총 105개의 개념과 35개의 하위범주가 나왔다. 최종적으로 이를 추상화시킨 결과 1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 축코딩(Axial Coding)

축코딩 과정에서는 개방코딩 동안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며, 현상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해내기 위하여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의 선을 따라서 그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행위이다[21][23].

이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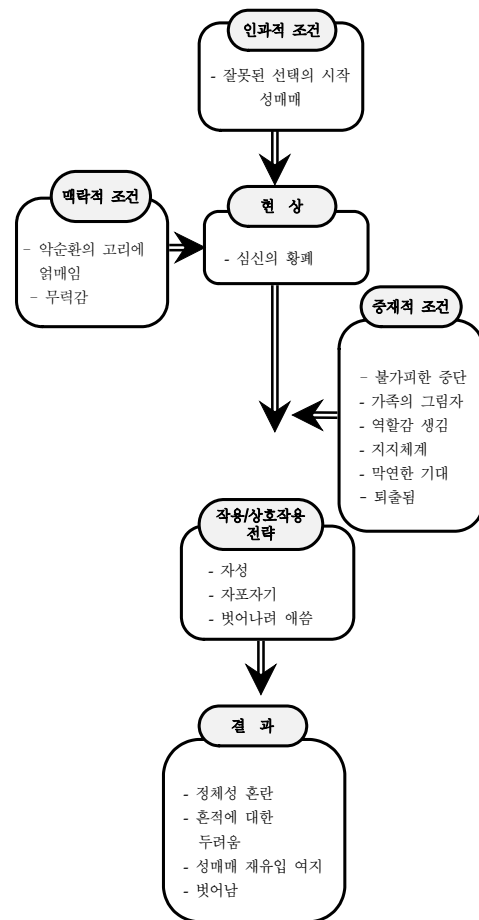


그림 1.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잘못된 선택의 시작 - 성매매’가 중심 현상이 되는 ‘심신의 황폐’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상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이다[21].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신의 황폐’가 중심현상으로 도출되었다.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21].

본 연구의 근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임’과 ‘무력감’이 맥락적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에 따라 중심현상인 심신의 황폐 강도와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정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21]. 본 연구에서는 근거자료에 의한 분석결과 중심현상인 심신의 황폐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재하는 조건으로서 ‘불가피한 중단’과 ‘가족의 그림자’, ‘역할감 생김’, ‘지지체계’, ‘막연한 기대’, ‘퇴출됨’이 도출되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안에서 존재하거나 특정한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여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쓰인다. 즉,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21].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심신의 황폐’의 중심현상을 다루고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성’, ‘자포자기’, ‘벗어나려 애씀’으로 나타났다.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2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심신의 황폐’라는 중심현상을 다루고 취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채택한 결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혼잡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매매 재유입의 여지를 넘어서면서 성매매를 벗어남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3.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 과정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다[21].

1) 심신의 황폐 단계

막다른 길에서 선택된 성매매는 다양한 이유로 시작된다. 가출을 하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일을 시작한다. 가출의 사연들도 다양하다. 부모의 무관심에서 받은 상처, 결혼가정에서 가족의 부재로 인해 받는 정서적 상처, 부모의 불화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밖으로 맴돌다가 가출, 폭력남편을 피해 도망한 가출, 친구의 꼬임에 빠져든 여성 등 다양한 가출의 이유는 자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모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양하지만 한 가지 같은 목표는 지금 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가출한 대가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집보다는 마음이 편하고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곧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는 참여자들에게 사회는 혹독하고 숙식제공이라는 간절한 조건에 들어온 다음부터 참여자들은 연속된 속임을 경험하게 된다. 아직은 보호 받아야 할 미성년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업주들은 파는 물건으로 취급하며 함부로 대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가 전무함을 이용한 업주들은 새로운 생활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참여자들

에게 다양한 미끼를 제공하고 아직 어린 참여자들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막다른 길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은 조금씩 성매매의 수령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당당한 돈벌이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성매매를 합리화 시켜보기도 하고 돈과 숙식을 해결하면서 목돈을 모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처음엔 손가락정도로만 담귀본다는 심정으로 시작하였지만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물에 잠겨 숨이 막까지 차오를 순간이 되었을 때야 상황을 인식하고 물에서 빠져나오려 하지만 이미 깊숙이 빠진 몸은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렇듯 성매매의 초기 유입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런 상황들은 참여자를 위축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도 만든다.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특성은 돈을 벌어야하는 업주와 성매매수자의 신체적 학대와 협박이 그들의 상품인 성매매여성들에게 죄의식 없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만신창이라고 자신을 표현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엉망이 되었고 너털너털해졌다고 느낀다. 자신이 선택한 성매매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벗어나기도 힘들다. 유입은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들어왔지만 벗어나기는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다.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벗어남이 힘들고 지친다. 벗어나서도 너무 망가져 있어 재기하는 게 힘들다.

2) 단념의 단계

막다른 길에 이를 정도로 몸이 상했고 심리적으로는 자존감이 손상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는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무기력해진 참여자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싶다.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도 참여자에게는 이 생활을 쉽게 끝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항상 자살할 방법과 자살할 물건들을 모으고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더욱 많이 하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한다. 벗어난들 너무 망가져 있어 재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괴감과 허무함, 그리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책감으로 마음은 항상 복잡하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다고 단념했지만 억울함이라는 반대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즉 양가감정이 갈등을 하게 된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자성을 하게 되고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 설계도 다시 해보고 싶어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이 억울하고 그러니 다시 한 번 살아보자는 오기가 조금씩 일어난다. 벗어나기 위해 돈을 성실히 모으고 결혼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과 결혼해 줄 수 있는 어리숙한 성매매 남자들 계획적으로 구하기도 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불신 했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회복하려 노력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3) 의지 회복의 단계

참여자들은 심신의 황폐단계와 단념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까지 살아온 날이 스스로 뭘가를 해서 성취해본 것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수동적으로 타인에 의해 속박되고 얽매어 살아온 지난날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들은 성매매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가 너무 참담하였고 후회스럽다. 여자로서 남과 같은 평범한 삶을 다시 한 번 설계하고 싶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는 탈성매매에 대한 의지를 굳게 만들고 과거를 교훈삼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며 포기했던 의지를 다시 회복하며 성매매의 단절을 위해 노력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변의 지지 체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에게 지원기관의 지지는 사회와 고립되어 있는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주는 것으로 효율적인 연계가 된다.

4) 평범한 삶의 적응에 도전

마지막 단계인 평범한 삶에 적응하기 단계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평범했던 과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단계이다. 성매매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성매매 생활에서 익혀진 습관들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성매매 할 때 이는 동료들과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등의 노력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 할 때의 내재되어있는 습성을 바꾸지 않고는 탈성매매 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힘들다. 자신의 본 모습

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이 보통 때 쓰는 언어습관, 생활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성매매 과거가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도 참여자들이 견대내야 하는 커다란 심리적 무게이다.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처럼 과거를 꼭꼭 숨기고 싶다. 또한 아무런 경제적 소득 없이 끝낸 성매매는 참여자들에게 생활고를 안겼다.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현재에서 참여자에게 신종 성매매는 위험한 유혹이 된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지만 새로운 삶에서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적응은 이들에게 또 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정임을 분명하다. 경험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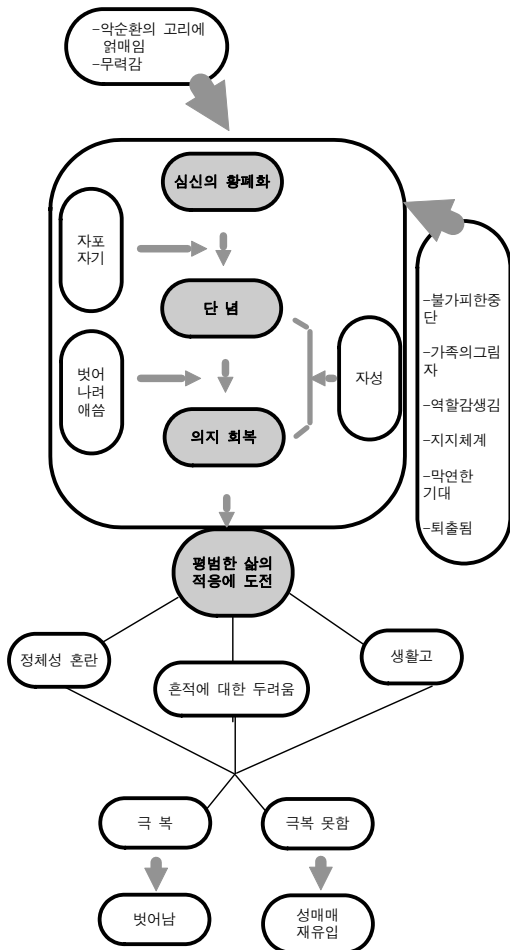


그림 2.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경험 과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과정에 관한 연구이며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탈성매매경험 과정을 탐색하고 실제 경험세계를 밝혀 이를 가설적 관계진술과 유형화를 통해 이론적 가설을 만들어 실제 이론 개발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매매 종사기간과 연령이 다양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탈성매매경험 과정을 분석하여 이론을 개발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신의 황폐를 탈성매매경험 과정의 중심 현상으로 보았다.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심신이 황폐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며 탈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하고 벗어남을 위한 의지를 회복 하였다.

Hester와 Westmarland(2004)[24]의 탈성매매는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고 개인의 대처능력이 중요하다는 연구보고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탈성매매의 여부가 개인적인 요인에 많이 작용하며 자신의 행위를 볼 수 있는 태도와 의지에 따라 탈성매매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성매매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개입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보다 개인적인 사고의 변화를 포함한 심리적인 부분에 포괄적으로 개입해야함을 시사한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심리사회적, 신체적 측면에서 위축되고 손상된 상실감으로 심신이 황폐되었다. 이 심신의 황폐에서 주체적인 회복 의지여부는 이들의 삶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삶의 태도와 유형에도 차이를 가져왔다. 따라서 심신의 황폐에 대한 변화의 차이에 따라 탈성매매 후 사회 적응의 의지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들이 황폐된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탈성매매 과정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손상된 자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별적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사회에 재적응하기에는 개별적인 특성과 신체적, 심리

적인 손상정도가 각자 다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1:1 맞춤형 상담서비스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별 1:1 전문상담사와 조력자가 있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탈성매매 과정에서 다양한 지지체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두려워해 사회에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된다. 주변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다. 특히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지지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 기반을 전달해 주어 사회에 나가 자립하는데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매매경험을 숨기고 싶은 이들에게는 신상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전문 지원단체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사회와의 소통을 열어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문기관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지만 신상노출의 우려성으로 인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망설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밀보장을 원하는 이들의 보호가 우선된 지원기관의 시스템체계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으로 탈성매매를 이룬 동료의 지지체계도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동료와의 공감대는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생활이 나아지면 동료들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참여자들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한 이들이 멘토 역할로 소통한다면 탈성매매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접근성이 효과적일 것이며 탈성매매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에게 이들은 역할 모델로 작용해 탈성매매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적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체계의 구조적 전환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은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체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등 시설에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까다로운 절차로 어렵게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잠시 보호하는 기능으로만 운영되며 사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여성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감금 시설로 여겨져 시설 입소가 꺼려진다는 시설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따라서 시설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시설에 들어가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호라는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전환시켜 개개의 요구에 따라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는 탈성매매 경험과정의 심층면접을 통한 참여자의 회고에 의존해야 했다. 본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후속 연구로서 탈성매매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종단연구는 탈성매매 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탈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하지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성 평등에 대한 법률이나 정책 등이 집행될 때, 법과 현실에서의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28] 현실에서 수요(성매수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성매매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수요가 줄어들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성산업이 줄어들 수 있고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에 해당되는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탈성매매 경험과정을 유형별로 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가 기초자료가 되어 탈성매매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본 연구는 모든 질적 연구가 갖는 대표성의 문제 등에 한계가 있다. 이런 면에서 후속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통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으로 탈성매매 과정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조양순, *한국 성매매청소년의 재활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 김용화,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 지원방안에 관한

- 연구-성매매 방지기금/예산조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2권, 제3호, pp.45-76, 2010.
- [3] 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경험과 맥락에 관한 연구 : '노동'과 '피해' 경험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4] 한국여성 인권진흥원,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관 협력모델,” 성매매방지 국제 심포지엄, 2014.
- [5] Barry,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1995.
- [6] 김금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방안,” 김금래 의원실, 2010.
- [7] S. A. Mansson and U. C. Hedlin, “Breaking the Matthew Effect - on women leaving pro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8, pp.67-77, 1998.
- [8] 성윤숙, 박병식, 박나래,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9] 김영숙, 이근무,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그 끝없는 탈주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3호, pp.5-30, 2008.
- [10] 김영주, *충남 탈 성매매여성의 효과적 자활을 위한 정책방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1-04, 2011.
- [11] 장수정,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에 대한 여성주의적 함의: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제14권, 제1호, pp.35-73, 2014.
- [12] 이정희, “탈성매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9호, pp.269-290, 2009.
- [13] 최혜연, 곽윤영, 김은영, 배주미,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제19권, 제1호, pp.183-202, 2011.
- [14] 성윤숙, “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유입실태와 탈성매매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0권, 제4호, pp.91-104, 2012.
- [15] 김자영, 양정빈, “탈성매매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保健社會研究*, 제33권, 제3호, pp.130-160, 2013.
- [16] 이근무, 유은주,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5-31, 2006.
- [17] 김영숙, 이근무, 안준리, “탈성매매여성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 - 근거이론 방법 접근,” *사회복지연구*, 제37권, pp.429-455, 2008.
- [18] 김현, “체험과 소통의 장, 인문학 강좌 체험과 소통의 장, 인문학강좌: 탈성매매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융복합인문논총*, 제37권, pp.147-173, 2010.
- [19] 김은숙, *탈성매매 여성의 관계중독에 대한 분석과 기독교 상담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20]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1998.
- [21] Deborah K. Padgett.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1998, 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 2001.
- [2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23] 최정호, *근거이론을 통한 노인 장기 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 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24] 고기숙, 정미경,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대처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54-279, 2012.
- [25] 이아름, 김미현, 이동훈, “여성출소자의 사회재진입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pp.388-409, 2017.
- [26] A. Strauss and J. Corbin,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2000,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2001.
- [27] M. Hester and N. Westmarland, *Tackling street prostitution, Towards an holistic*, 2004.
- [28] 전병주, 윤상용, “남성의 성매매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pp.159-170, 2015.

저 자 소 개

김 혜 경(Hae-Kyung Kim)

정회원



- 2016년 6월 : 위덕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여성, 아동복지

구 차 순(Cha-Soon Gu)

정회원



- 200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7년 ~ 현재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2007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아동복지